

파이고 가로막히고... '안전' 빠진 자전거도로로 '위험'

광주시 공공자전거 '타랑개' 오늘부터 시범운영...상무지구 둘러보니

광주시의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정착 기반시설인 자전거도로 정비조차 하지 않은 채 진행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공공자전거 '타랑개'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시는 1일부터 상무지구에서 타랑개 운영을 본격 진행한다.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 정기권(1일권 1000원·7일권 2500원·1개월권 5000원·6개월권 2만원·1년권 3만원)을 미리 구매한 뒤 원하는 곳에서 빌려타고 목적지에서 반납하는 방식이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점차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등 친환경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인도·차도 넘나들며 곡예주행 표지판·야간 반사판도 안보여 전동킥보드와 충돌 위험 상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지적

높이겠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대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없는 무늬만 '자전거도로'가 적지 않고 자전거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자전거만 배치해놓은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전거 도로 맞아? = 광주시가 8억원을 들여 공공자전거 타랑개 200대를 설치한 곳은 상무지구 52개소. 이른바 자전거 정류장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자전거 겸

용도로가 많이 설치된데다, 인도 폭도 넓어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자전거 겸용 도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접 타고 돌아본 상무지구 자전거도로도 인프라는 기대를 밑돌았다.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겸용도로의 경우 부실 투성이었다. 우선, 상무지구 시청 건너편 자전거 겸용도로의 경우 개진 보도블럭에 대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울퉁불퉁했고 심하게 흔들려 넘어질 뻔했다.

야간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반사판이 설치된 곳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 가능한 교통 안내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다.

상무지구 롯데마트 앞 자전거도로에는 구형이 설치한 '서구청 365만원실' 간판으로 통행이 어려웠고 인근 자전거 겸용도로는 지하철 송풍구 구조물로 사실상 자전거도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공사장 자재들이 쌓인 자전거도로 등도 적지 않아 차도를 넘나드는 불안한 운전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자전거의 차도 이용도 문제다. 공공자전거 타랑개가 시범운영되는 상무지구조차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다 보니, 차로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자전거 차가 불법 주차차 차량들로 뒤덮이면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차도를 나다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힐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 등을 통해 집계한 광주 지역 자전거 교통사고가 190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많다.

◇자전거 구입하는 것보다 인프라 개선이 먼저 = 광주시의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298개 노선에 661.39km로, ▲전용도로(자전거만 통행가능) 128.64km ▲전용차로(차도 일부중 자전거만 통행가능) 12.58km ▲겸용도로(자전거와 보행

자가 함께 통행 가능) 508.79km ▲우선도로(차도중 자전거와 차량이 모두 통행가능) 11.38km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부디 점검해야 한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올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조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행자-자전거-전동킥보드가 뒤섞이는 일이 빚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광주시가 공공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등 인프라 개선이 아닌, 자전거 확보 및 정류장 설치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물순환 선도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전거도로 정비는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타랑개' 시범운영구간인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자전거도로는 지난 27일 개진 보도블럭에 대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울퉁불퉁했고(왼쪽), 일부 자전거도로는 구조물(가운데)로 막혀있었다. 이날 자전거를 탄 한 시민은 자전거도로가 끝난 지점에서 도로로 나와 운행중에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고 있다.

무면허로 회사 동료 차량 몰고 업무 수행하다 사고로 사망 법원 "노동자에 업무상 재해 따른 보상해줘야"

무면허로 회사 동료 차량을 몰고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회사 상사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발전소 현장에서 사용할 잔디를 운송하

기 위해 회사 상사의 화물차를 몰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한 차량을 뒤따라다 들이받았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측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범퍼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잔디를 실어나르기 위해 운전한 행위는 업무상 행위"라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전에도 차량을 운전해 잔디 운송 업무를 했고 운전 미숙으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회사도 A씨 운전 행위를 업무 일환으로 용인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고가 A씨의 무면허 운전행위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졸업한 제자 수십명 주민번호 유출 교사 검찰 송치

졸업한 제자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해 학교 외부인에게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산경찰청은 모 여교 교사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 고용 목적으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A씨의 남자 형제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광주한 여고에서 교무 책임자를 맡았던 지난 2016년 2월에 졸업한 제자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빼돌려 B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근로자를 허위 채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신상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불법채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여교 졸업생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해당 업체는 구인난을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이들을 고용했다. 경찰은 인건비를 부풀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챘는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으나 위장 고용 사실만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

중교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무청, 대체복무 접수 시작

중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광주·전남병무청을 비롯, 전국 병무청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중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온 광주·전남지역 특정 종교 신도들도 대체복무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가 시작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중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중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광주·전남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경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광주·전남병무청도 접수 첫날이라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향후 점차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땀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정보 검증을 목시적이라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취지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